

지 상 법 석

진리공덕 문 여는 열쇠

“모든 중생의 본성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지혜행입니다”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밝은 빛을 받는 것 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것이라도 밝은 빛을 한 번 받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없앤 후에는 두 번 다시 불행 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 밝은 행을 열어 가야 합니다.

항상 내 마음을 밝게 하는 방법은 어둠 고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이 나타나면 반야 를 통해서 오오이 공함을 지혜의 눈으로 비추어 보고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밝은 지혜로 마음을 채울 것이며, 어려우면 참회 를 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밝게하는 것입니 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온 세계는 佛세계 이고 부처님의 공덕과 위신력을 가진 사

하는 말을 아끼지 말고 사용해서 집안에 평 화와 만족이 가득하도록 합니다.

불안함, 무엇인가 받지 못한 피해의식, 우울함, 이루지 못한 자기 불만, 그야말로 억압된 감정을 호소할 곳 없는 것을 가슴 에 안고 헤매다가 기회가 있을 때 터뜨 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에게는 따뜻한 안식처, 가 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참으로 위 해주고, 칭찬해주고, 공경해주고, 자기편이 되어주고, 따뜻한 감싸주면 사람들은 거 거 서 후식을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에 의지해서 행하면 그 집안은 부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집안의 생명이 커가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어떤 고

을 두루 갖추어 여래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예 경하라는 말씀은 일체 중생을 칭찬하라는 것이며, 무엇을 칭찬하느냐 하면 일체 중생 이 여래공덕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행원품”에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이루는 방법의 하나로 칭찬여래를 말씀하 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일체 여래를 칭찬 하는 것이 어째서 한량없는 여래공덕을 성취하는 방법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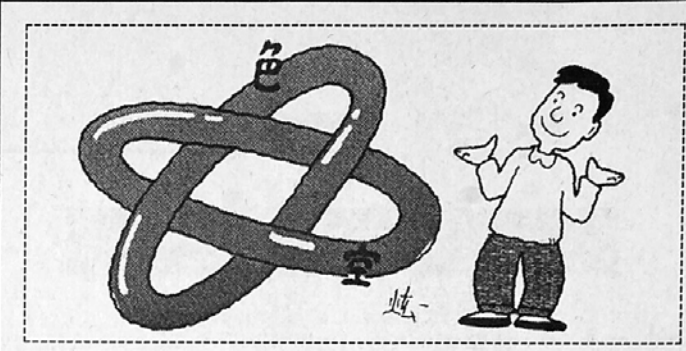
그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며 긍정하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믿고 긍정하고 말하는 거기 에는 말하는 내용대로 이루어 하는 힘이

그 반대의 말에서 공덕의 문은 닫히고 불 행과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이 도리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말조심을 해야합니다.

진리를 긍정하는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 는 말, 낙관적 희망적으로 보는 말, 적극적 이고 성공적인 말, 신념이 담긴 말을 할 것 이요, 결코 부정적인 말, 패배적인 말, 나쁜 말, 증오, 분노, 원망, 비난, 저주, 불평불만 등 어두운 말은 멀리 공덕을 발휘하여 밝 고 위대한 진리의 세계를 구현할 것을 기 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로 위해주는, 서로 예경하고, 서로 예 찬하고, 서로 돕고, 기뻐하고, 존경하는 마 음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집제(集智) 속 에 있는 어두운 것을 타파해 버리는 방 법이고 행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 근본적인 착 각관념을 깨는 방법은 거들 말하지만 반야 의 빛으로 비추어 보아서 일체가 밝은 광 명뿐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항상 바라발을 염송하고 외워서 스스로의 생각속에 어두 운 그림자가 갖들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



인간은 아마도 거 의 유일하게 반성적 사유가 가능한 생물의 종이라고 생각된 다. 그러므로 인간 이란 ‘나는 과연 무엇인가?’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 존재 이다. 그러한 물음 을 자기 자신에게 던질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이 인간을 참 으로 인간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불성의 자각 곧 해탈에 이르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반성적 사유에 의해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주의 모든 사물을 명멸하 고 관찰해 보면, 그 크기가 아주 작은 양상 자나 중성자에서부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크기가 대단히 큰 천체에 이르 기까지 어느 것 하나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자성 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연기(緣起)에 의하여 즉 서로의 연관에 의하여 존재할 뿐이므로 제 법무아(諸法無我)라고 한다. 오직 연기에 의할 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으므로

고 없는 듯 하기도 한 상태이다. 또한 별의 상태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없이 임없이 변화하여 가는 인연 화합의 상태일 뿐이다. 색즉시공 공즉시 색이란 시간이 경 단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이 인간을 참 으로 인간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불성의 자각 곧 해탈에 이르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라는 것이다. 색성공이라는 것은 색의 성품이 공하다는 것이니, 공이란 색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색이 있는 자리를 떠나서 따로 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색은 공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공은 색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좋은 예를 현대물리 학의 상대론적 양자역학에서 찾는다. 상대론적 양자역학이 이해하는 진공의 개념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 이 완벽하게 차 있는 상태를 이르는 것 이다. 그러므로 공의 자리가 바로 색의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46
양행진
공가중 삼제원용

믿음의 실천 곧 ‘행원’... 삶 새롭게 바꾸는 원천 항상 바라밀염송 밝은 마음 드러나도록 정진

람들로 꼭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 생들은 부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중생 세계, 고통의 세계를 보고 그 속에서 허덕 이고 살다가 갑니다. 그건 남이 만들어 주 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그렇게 마음먹 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참모습과 그 지혜덕성이 부 처님과 다름없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 드 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존경을 다해서 예경을 하고 그 덕성을 칭찬한다는 것입니 다. 모든 사람에게서 부처님 공덕의 원만구 폭을 깊이 믿고 장점을 발견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는 말 이것이 부처님의 공 덕을 참으로 우리 주변에 실현시키는 방법 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꾸짖고 나무라고 잘못하였다고 지적하기 이전에 원천적으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믿고 잘하는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공경해서 공덕을 우리 눈앞에 현시시켜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비록 잘하는 것이 적다 하더라도 이 적은 것이 커져서 불 행을 덮어버리고 평화와 만족만이 집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서로 장점을 보고 서로 밝은 면만 보아 위해주는 말만 할 때 집안 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

난과 어려움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집에 와 서 그런 것을 풀어 버릴 수 있다면 남이 거 나 여자이거나 그는 집에서 새로운 정신 적 힘이 충전되어 다음날 활기있고 용기있 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불자 형제들 집에 이와 같은 법등을 밝히고 부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 나게 되어 그 집안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이 충만한 힘이 충족을 받아 가는 곳마다 활기에 넘치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집안을 위한 길 이고 그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길이고 나 아가서는 국가를 번영으로 이끄는 길입니 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지 말고 잘한 것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것을 꼭 실천합시다.

모든 부처님을 칭찬한다는 대목에서 우 리는 다시 살필 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경을 한다지만 어째서 일 체 중생을 예경하고 칭찬하느냐 하는 것입 니다.

형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 든 중생의 본성은 불성입니다. 모든 사람의 진면목이 불이며 불의 공덕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래가 일체 중생 을 보며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눈, 부처 님의 몸이 있어 엄연 부동하고 모든 덕성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믿음의 표현이며 깊은 마음의 형성으로서 말하는 말에는 그 내용을 이루게 하는 힘 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를 긍정하는 말, 자성공덕에 부합되는 말은 진리자체의 발동으로서 그만큼 구체적 실현력을 지닌 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 실 상을 긍정하는 말은 진리의 힘이 함께 한 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래를 칭찬하고 진리를 긍정하는 말에서 진리의 완전을 실현하게 되므로 칭찬여래가 여래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말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진리공덕의 문은 여는 열쇠라고도 할 것입니다. 진리공덕을 긍정하는 긍정과 찬 탄, 적극적 말에서 무량창조가 전개되고,

의 본래의 밝은 모습만이 항상 드러나도록 열심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생활주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원은 바로 창 조행이다. 행원이야말로 우리의 환경을 새 롭게 만드는 원인적인 힘이다.’라고 말씀드 릴 수 있습니다.

“바라밀, 완전구족한 바라밀, 완전성취의 바라밀 이것이 나의 참모습이다. 부처님의 마음, 불성이 이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다. 이 려게 알고 아주 믿어버리자, 나는 바라밀 공덕, 부처님 공덕으로 내 생명 이와 같이 있는 것이니 나는 내가 아니다. 부처님에게 모두를 맡기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생명 가운데 진리공덕이 넘쳐 나옵니다. 행원은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과도가 바다 떠나 존재하지 못하듯 空·假·中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한다.

이제는 지금 존재하는 그 어느 것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성주공 공(成住壞空)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좋은 예가 밤하늘의 별 이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천체들 도 시작과 끝이 없이 오직 인연법 에 의하여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여 가다가 마침내 소멸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아주 중요한 점 을 놓칠 수도 있다. 가령 지금 밤하늘에 있는 별은 성주공공의 주(住)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 다가 괴멸하여 공(空)의 단계에 이르며, 또한 이 공의 단계에 있는 이물들엔 성 간물질과 같은 것들은 공의 상태에 있다가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지면 주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주와공을 단순히 시간상의 비이로만 이해하는 오 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색과 공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지만 색 이 변화하여 이윽고 공이 되고 또한 공 이 변화하여 이윽고 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세계는 비단 색과 공, 진공과 묘유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 라, 번뇌와 보리에 대하여 생사와 열반 에 대하여 마음과 중생과 부처에 대하여 다 성립하여야 할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자)

화제의 신간
(보문품)의 가르침을 우리의 언어로 새롭게 쓴 생명 법문

관세음보살 보문품강화
普文品講話
법령스님 지음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예나와 지금 부적의 경지만!!!
김백만 편저/값 35,000원

관음독송경 시리즈

1. 우리말 금강경(심재열/값 2,000원)
2. 한문 금강반야바라밀경(심재열/값 2,000원)
3. 우리말 불설아미타경(심재열/값 2,000원)
4. 한문 불설아미타경(심재열/값 2,000원)
5. 우리말 천지पाल심주경(이정범/값 2,000원)
6. 한문 불설천지पाल심주경(이정범/값 2,000원)
7. 우리말 예불대점회문(심재열/값 2,000원)
8. 지장보살본원경(동봉/값 6,000원)
9. 원각경 보안보살장-팔양경(경홍/값 2,500원)
10. 천수경(근간)
11. 부모은중경(근간)
12. 관음경(근간)

*법보시물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전화 : (02) 921-8434, 929-3470 팩스 : (02) 929-3470

관음출판사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
역임했던 고형근 박사의 역작!!

增補版

선의 세계
高亨坤 著

제1권 서양철학과 禪
제2권 한국의 禪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 선교일치의 전통을 밝히고 동양문화의 특색을 이룬 선불교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제3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저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선(禪) 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大止觀坐禪法
摩訶止觀
대지관좌선법 전5권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드디어 현대어로 완역

(마하지관)은 천태대사가 선수행의 방편과 자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다. 지관법(止觀法)은 사기세존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편인 동시에 사기세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풍부하게 된 수행방법이다.

天台智者 大師 述
空錄 金無得 註釋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